

1 하나님의 나라 건설

본문/ 창세기 1 장

핵심적인 말씀/ 창 1:26-28

요절/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용 관찰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다”와 “공중”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6 절에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절에서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스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스림”이란 왕 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적인 직무입니다(출 28:1)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31 절)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섬김”과 “다스림”은 결국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28 절) 복이 왕 같은 제사장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그 복을 상실하였으나 마지막 아담은 그 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파송받을 때에는 복음으로써 땅을 정복하여야 할 왕 적인 권세를 부여받고 출발함을 명심하십시오.

^^ 나누어 봅시다

1. 천지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3. 결국 무엇이 건설된 것입니까?

^^ 적용/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2 사랑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본문 / 창세기 2 장

핵심적인 말씀 / 창 2:15-17 절

요절 / 창 2: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용관찰 / 창 2 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을 창설하사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담에게 배필을 짝지어 주시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줍니다. 한가지 선악을 알게하는 실과만을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악을 알게하는 실과”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듯 싶습니다. 많은 이단사설이 이를 곡해한데서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무엇 하러 만드셨담”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언약이란 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만 호 6:7 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고 아담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 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음을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언약을 주심이 없다면 아담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여부를 무엇으로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에게 하신 것이 사랑의 언약이었음은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는 문맥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사랑의 언약관계입니다. 아담은 하와만을 알아야 하고 하와는 아담만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가혹하다고 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렘 31:32)고 말씀합니다. 약 4:4 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라고 합니다.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선악과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 나누어 봅시다

1.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계시되어 있습니까?
2. 금단의 실과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3.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성은 어떻게 성립됩니까?

^^ 적용 / 선하신 하나님께 대해 당신이 범하고 있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3 은혜언약을 주신 하나님

본문 / 창세기 3 장

핵심적인 말씀 / 창 3:14-19

요절 / 창 3:15

내용 관찰 / 창 2 장에서 맺으신 사랑의 언약이 3 장에 와서 깨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라는 말은 곧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임을 뜻합니다.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보다는 유혹자의 유혹을 더욱 믿었습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은 언약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뜻합니다. 그것이 마치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짐과 같이 생명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분리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으며 아담의 후예들은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었으며 사망이 왕 노릇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 인류는 첫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과 둘째, 두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을 것이며 셋째, 종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그가 사탄을 정복하고 매었던 종들을 자유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위언약이 아니라 “내가 ... 할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실 은혜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은혜언약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살게 되고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생명의 생산자)하였다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음을 말해줍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명심하면서 은혜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 나누어 봅시다

1. 유혹한 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계 20:2)
2. 원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 이제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 적용 /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4 다른 씨를 주신 하나님

본문 / 창세기 4 장

핵심적인 말씀 / 창 4:25-26

요절 / 창 4:25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 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내용 관찰 / 창 4 장은 하나님께서 창 3:15 에서 선언하신 원복음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인류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될 것과 그 두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을 것을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담의 자식들 대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아벨은 여자의 후손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훗날 에서와 야곱에서도 이러한 갈라짐은 있었으며 마지막날에 가서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또는 잠을 자고 있다가 두 편으로 갈라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되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은 형이 아우를 죽인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하신 그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시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대적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의 약속은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하신 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란 하나님께서는 씨를 보존해 내려오시는 반면 사탄은 그 씨를 진멸하려는 대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다른 씨”의 줄기에서 메시아는 오셨으며 “한 알의 밀”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그 씨는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씨를 주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십시오.

^^ 나누어 봅시다

1.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란 (히 11:4)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2.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 적용 / 영생의 마음 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까지의 비밀의 경륜을 아십니까?